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진로장벽 연구: 사이버 상담 게시판 사례를 중심으로

양미진(楊美珍)*

허자영(許慈暎)**

채민정(蔡旻廷)***

김경민(金庚珉)***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사이버 상담 게시판에 진로문제를 호소한 사례의 질적분석을 통하여 원하는 진로가 있지만 진로목표수행과정에서 진로장벽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의 내적 경험과 그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진로지도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사이버 상담 게시판 사례 중 진로장벽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등학생 24사례를 QCR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장벽은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가장 많이 호소하며, 둘째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진로장벽의 유형은 성적부진, 재능의 한계 등 자신의 능력 부족, 가정의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 부모님의 반대 등이 보고되었고, 셋째, 진로장벽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진로장벽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 인지적 혼란과 문제를 과잉일반화하는 경향을 드물게 보고하였으며, 정서적으로 우울과 분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안을 탐색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도 드물게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사이버 상담에 기대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법 탐색이었으며, 감정의 정화와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이해도 사이버 상담을 찾는 이유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차후 연구를 위한 제안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청소년, 진로장벽, 사이버 상담, 질적 분석

* 주저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실장(상담조교수)

** 교신저자, 성심가족상담센터 상담원

***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원

I. 서론

청소년기는 정체감 형성과 관련하여 진로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인생에서 중요한 발달단계이다. 이를 반영하듯 청소년들은 진로문제를 학업이나 교우관계 문제보다 심각한 문제로 보고하고 있으며(이창호 외, 2009) 이러한 진로에 대한 고민은 대학진학 이후에도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진로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진로탐색 도구들이 개발되었고 집단 프로그램도 보급되고 있지만 실제 청소년들이 호소하는 구체적 진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진로지도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학생들의 진로결정을 돕고 진로결정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고충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진로결정과정에서 갖게 되는 진로문제의 유형 파악은 진로지도의 시작점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진로문제 유형에 관한 연구로는 초기 청소년기의 정체감형성과 관련한 Marcia(1980)의 유형 구분과 이후 다양한 진로미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들을 들 수 있다. 청소년 시기의 정체감 형성과정에 관한 이론과 연구는 Erikson(1968)의 정체감 대 정체감 모호(identity diffusion) 단계의 심리적-발달적 과업의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청소년기 동안의 주요 발달 과업은 자신과 외부에 대한 다양한 탐색(exploration)을 통해 일관되고 통합된 정체감 형성과 이렇게 형성된 정체감을 수용하고 이에 헌신(commitment)할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탐색과 헌신은 자아정체감 형성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두 개념으로 탐색은 이념적, 대인적 영역의 다양한 대안들을 능동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뜻하고, 헌신은 이러한 탐색을 통해 형성된 자아정체감을 수용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상태로 이는 분명한 가치와 신념 그리고 목표로 특징지워진다(Marcia, 1980). Marcia(1966)는 정체감 대 정체감 모호 단계의 과업을 네 가지 수준에서 설명하였는데 각 수준은 탐색과 헌신차원에서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정체감 성취(identity achievement)는 탐색을 통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이에 책임을 다하고 헌신하는 상태를 말한다. 유예 수준(moratorium)은 탐색이 진행 중인 상태로 자아정체감 형성이나 이에 대한 헌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조기완료 수준(foreclosure)은 스스로의 탐색 없이 부모의 의견을 수용하고 이에 헌신하는 상태를 말하고, 모호 수준(diffusion)은 자아정체감에 대한 탐색과 수용 및 헌신이 없는 상태로 정체감 형성과 진로결정에 대한 욕구가 없는 상태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Marcia의 모델은 Erikson의 발달이론을 근거로 청소년기의 진로발달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어 왔다. 특히 정체감 형성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진로탐색과정인 Marcia의 모델에서 유예 수준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가정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의 진로탐색을 돕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예: 직업탐색검사, 진로흥미검사 등)이 개발되어 왔다. 이처럼

Marcia의 모델이 탐색, 즉 진로결정에 대한 동기와 이에 대한 탐색행동, 그리고 탐색결과에 대한 헌신을 축으로 한다면 이후 다양한 진로미결정 이론들은 진로결정과 이에 대한 헌신을 축으로 하고 있다.

진로미결정은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개인이 겪는 문제들을 지칭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어 온 개념으로, 진로미결정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계기는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확실한 결정을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불확실해하고 고민하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데에서 출발되었다. 초기연구는 진로를 결정한 학생과 결정하지 않은 학생 간의 차이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연구결과 진로를 결정한 학생과 결정하지 않은 학생들 간에 성격이나 능력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후의 연구들은 미결정자들이 동질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으며 미결정의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는 근거하에 진행되었다. 초기 진로미결정 유형론 중의 하나는 미결정과 우유부단함을 구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개인을 이러한 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Slaney, 1988), 진로미결정에 대한 두 번째 유형화 이론으로 진로결정지위모텔(Jones & Chenery, 1980)이 지지되었다. 진로결정지위모텔에서는 미결정 집단을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1) 결정성(개인의 미결정 수준), (2) 편안수준(자신의 미결정수준에 대해 편안한 정도), (3) 미결정의 이유. 진로결정지위모텔의 의의는 진로상담이 필요하나 이전까지 배제되었던 진로를 선택하고도 그 결정에 대해 편안하지 않은 집단과 진로를 결정하지 않고 편안한 집단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으며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집단에 대하여 그 원인을 세분하여 차별적인 처치를 보다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진로결정지위모텔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진로결정/미결정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유형으로 설명되는 다차원적인 구성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러한 견해는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질적 특성을 소유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미결정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진로결정 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입의 필요성 또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진로미결정 유형들(Crites, 1981; Larson et al., 1988; Savickas, 1989)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진로결정집단이 포함된 연구들(Fuqua & Hartman, 1983; Multon, Heppner, & Lapan, 1995)도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최근의 연구들은 이처럼 진로를 결정한 집단과 결정하지 않은 집단을 모두 연구와 상담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진로를 잠정적으로 결정한 학생들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의 고민도 수렴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진로목표를 결정하고 갈등이 있는 집단의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는 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전적인 진로이론들이 진로결정에 있어서 개인의 특성과 직업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적합성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는 특성이론의 성격을 띄고 있었던 점을 한 가지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특성이론들은 자신의 흥미, 적성, 능력 등 개인적 특성에 부합하는 직업을 개인이 원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Gybers, Heppner, & Johnson, 2003). 그러나 실제 진로결정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으며 개인 내적인 요인과 개인 외적인 요인의 지속적인 조율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종의 타협의 과정(Gottfredson, 1981)이다. 따라서 개인은 진로목표의 선택 및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맥락적 요소들을 진로장벽으로 지각하고 이러한 진로장벽과 자신의 흥미를 타협하며 진로선택에 이르게 된다(Luzzo, 1993, 1996; McWhiter, 1997). 따라서 개인의 진로결정과정을 개인 내적인 요인인 의사결정능력이나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의 부족 혹은 진로결정 필요성의 부족 등으로 다루어 온 기존의 관점만으로는 맥락적 요인을 포함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그에 대처하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진로결정에 있어서 개인적 요인과 함께 맥락적 요인들을 고려한 진로이론들이 등장하였다.

최근 Lent, Brown과 Hackett(1994, 2000)는 사회인지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을 통해 환경적, 맥락적인 요인을 포함하는 진로결정에 대해 설명하며 진로결정에 있어서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의 인지적 요인과 함께 지지자원과 장애요소와 같은 맥락적 요인들 또한 진로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SCCT에서 진로장벽은 진로선택 및 수행에 영향을 주는 맥락변인으로 진로목표의 성취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지칭한다. 즉, SCCT에서는 내적 장벽과 맥락적 장벽을 구분하여 진로장벽의 개념을 맥락적 장벽에 국한하였는데 이는 내적 장벽으로 정의되는 요인들이 진로결정과정의 주요 요소인 자기효능감의 연속적 개념으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Swanson & Woitke, 1997). 반면 Crites(1969)는 진로결정에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진로장벽으로 보고 이를 다시 자신감, 동기, 직업정보 부족 등의 내적 진로장벽과 차별이나 가난과 같은 맥락적 장벽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천석준과 이기학(2008)은 내적 진로장벽에 속하는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과정의 일반적인 측면과 관련된 것으로 특정 진로분야에 대한 자기효능감이나 진로흥미 등의 변인과 일치하는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회인지 진로이론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맥락적 장벽만을 고려하는 경우 특정 진로분야에서의 진로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지 못하는 제한점을 갖게 된다. 따라서 내적 장벽과 맥락적 장벽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다양한 진로목표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 필요하다는 쪽으로 현재 그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공윤정, 2008).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진로장벽을 내적 장벽과 외적 장벽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진로장벽의 측정을 위해 Swanson, Daniels와 Tokar(1996)는 진로장벽척도 개정판(Carrer Barrier Inventory-Revised)을 개발하고 직업이나 진로계획의 수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진로장벽을 정의하였다. Swanson, Daniels과 Tokar(1996)의 진로장벽 하위유형은 자기이해 부족, 자신감 부족(학업태도 및 성적),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장벽 척도가 여자청소년용(황매향, 이은설, 유성경, 2005)과 남자청소년용(황매향, 이아라, 박은혜, 2005)으로 나뉘어 개발되었으며 이 척도들 역시 Swanson, Daniels과 Tokar(1996)의 7가지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척도 개발 등을 통해 진로장벽을 포함하는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양적인 접근에 머물고 있어 실제 학생들의 진로장벽과 관련한 내적 경험에 대한 연구는 제한되어 있다. 한국문화에서는 맥락적 요인 특히 부모의 영향이 진로결정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공윤정, 2008; 천석준, 이기학, 2008) 청소년 진로목표설정과 수행에 있어서 진로장벽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겨진다.

진로장벽은 진로결정과 그 수행을 방해한다는 점 뿐 아니라 진로목표를 잠정적으로 결정한 청소년들이 진로장벽을 경험하면서 좌절감과 무망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로상담의 중요한 연구주제로 떠오르고 있다(이운주, 김경화, 민하영, 2008). 실제 사이버 상담 게시판에 진로문제를 호소한 청소년들의 경우 결정된 진로목표를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를 만나 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가 다른 진로문제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창호 외, 2009) 이 경우 심리적 문제들(예: 좌절감, 분노 등)도 동시에 보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양미진 외(2009)는 사이버 상담에서 진로문제를 중심으로 호소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이 진로갈등에 관한 문제를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연구의 경우 Marcia의 모델을 기본축으로 하여 진로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유형을 '혼란'(진로결정에 대한 동기가 결여되어 있는 유형), '유예'(진로탐색의 동기가 있으며 진로목표 결정 과정에 있는 유형), 그리고 '갈등'(진로목표가 잠정적으로 결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갈등이 있는 유형)으로 분류하고, '갈등'은 자신이 원하는 진로가 있지만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 혼란을 겪거나 좌절을 경험할 때로 정의했다. 즉 자신이 원하는 진로가 있는 학생들이 진로장벽을 깨닫고 경험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은 진로장벽을 경험하면서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진로장벽이 직접적으로 진로선택과 수행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Lent, Brown & Hackett, 1994, 2000). 따라서 Marcia의 용어를 빌면, 이제까지 진로상담이 탐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진로목표에 대한 헌신(commitment)과 헌신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요인들에도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목표를 선택했지만 내적,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그 목표를 포기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경우 혼란 혹은 유예 상태로 돌아가게 되며 이는 이러한 좌절 경험 없이 진로결정에 대한 동기가 없는 집단과 진로탐색이 진행되고 있는 집단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넓은 의미에서 진로갈등 혹은 좌절의 경험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여전히 진로유예단계에서 진로결정을 향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그 심리적 과정은 정보를 탐색하며 진로결정과정에 있는 학생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차별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진로발달이 이전처럼 탐색과 결정의 직선적인 현상으로 설명되는 경우 진로목표의 결정 이후 좌절을 겪고 다시 진로탐색으로 돌아가야 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이 논의에서 배제되기 쉽다. 따라서 실제 진로목표를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일정 기간 수행해 왔으나 진로장벽으로 인해 좌절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진로지도에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앞에서 지적했듯이 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그 특징을 양적으로 연구한 것들로서 진로장벽과 관련된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내적 경험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벽과 관련한 진로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내적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청소년 진로지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제 진로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상담에서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진로상담자들이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상담 중 게시판 사례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진로장벽의 유형 및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면 상담의 경우 호소문제가 있어도 상담자를 만날 때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사이버 상담은 문제 상황에서 즉시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특성, 즉 접근 용이성을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문제 상황 당시 청소년들이 느끼는 어려움 정도와 감정상태를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0). 따라서 사이버 상담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을 때, 청소년들이 진로장벽을 경험하는 시점에서의 인지적, 정서적 갈등상황을 잘 드러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2009년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상담현황에 따르면, 사이버 상담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담유형 중 하나로 보고되었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10). 연간 9,000여건 전화상담 이용자의 65.8%가 학부모, 지도자인 반면, 연간 24,000건의 사이버 상담은 93.2%가 청소년 이용자이며 2006년 대비하여 2009년에는 사이버 상담 이용자가 153% 증가하는 등 사이버 상담의 수요는 매해 급증하고 있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10). 또한 사이버 상담 게시판에서의 호소문제를 살펴본 결과 대면상담과 같이 학업 및 진로문제에 대한 상담 비율이 높게 나타나 사이버 상담이 주요한 청소년 상담방법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상담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비하며 더욱이 사이버 상담에서의 청소년 진로문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한편 임은미(1991)의 연구에서는 면대면 상담에 비해 사이버 상담에서는 청소년들의 언어반응이 활발하며 청소년들이 사이버 상담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청소년들은 “나를 알리지 않고 고민거리를 이

야기할 수 있어서 사이버 상담이 부담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즉 사이버 상담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청소년들이 사이버 상담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로 밝혀졌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10). 이와 같이 사이버 상담은 안전하게 자신의 사적 경험이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에 대한 상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주요 상담영역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상담의 수요와 그 이점을 반영하여 사이버 상담 게시판을 통해 청소년들이 호소한 진로장벽의 특성과 심리적 어려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II.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상담 게시판 사례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진로장벽의 특성을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진로장벽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내적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 중 합의적 질적 연구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이후 CQR)을 통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CQR은 Straus와 Corbin(1990)의 근거이론과 Elliot(1989)의 집중적 과정분석을 결합하여 개발한 질적 분석방법으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의 경험 내용을 범주화하고 그 경험의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양미진, 이영희, 2006). 특히 CQR은 기존의 질적 연구방법의 객관성 결여와 결과의 반복성, 엄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지승희, 2001)는 한계를 보완하여 개발한 것으로 복수의 연구자(분석팀)가 참여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과 사례간의 대표성을 검토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강조한다. 자료분석과정에서 분석팀은 자료를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각 분석자들간의 일치와 불일치를 확인하고 그 차이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의해 나가는 절차를 따른다. 또한 분석팀이 중요한 자료를 보지 못했거나 자료해석에 편향된 관점이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수자가 분석팀의 합의 판단을 점검하는 절차를 따른다(양미진, 이영희,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호소하는 진로장벽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 이론의 구성요소에 제한받지 않고, 내담자의 경험을 통하여 현상을 탐색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질적 연구의 객관성 결여가 보완된 CQR을 연구방법으로 선정하였다. 다수의 합의팀에 의해 자료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CQR은 사이버 상담 사례처럼, 상호적 면담과 달리 연구자료가 이미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연구진행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1.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상담기관의 2009년 1월에서 2009년 9월까지 사이버 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총 63개의 진로 사례를 분류한 결과를 기초로 이 중 진로선택에 관심이 없거나(혼란), 진로선택에 필요한 자신에 대한 그리고 직업에 대한 이해단계(유예)에 있는 사례들을 제외하고, 원하는 진로가 있지만 진로 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내적, 외적인 방해 요인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사례들(갈등)을 1차적으로 선정하였다. CQR의 특성상 비교적 동질집단 대상의 분석 결과가 유용하기 때문에 이 중 상담빈도가 낮은 중학생집단이 제외되었고 지역차로 인한 간극을 줄이기 위해 서울, 경기지역의 고등학생으로 연구대상이 한정되었다. 이 결과 서울·경기지역의 고등학교 1-3학년생 중 원하는 진로가 있지만 진로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진로장벽을 경험하고 있는 24사례가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게시판에는 동일 내담자가 여러 번 글을 올리는 사례도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글을 올린 시점의 청소년의 내적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첫 글만을 분석대상으로 제한하였다.

2. 분석절차

1) 영역부호화

본 연구에서 수집된 사이버 상담 게시판 자료는 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와 달리 내용에 일관성이 없거나 체계적이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지승희, 신호정, 이명우, 2008). 이러한 자료의 특징을 보완하기 위해 내용을 주제별로 구분하는 영역부호화 과정에서 4명의 연구자로 구성된 연구팀이 10개의 사례를 함께 읽고 합의하여 영역으로 도출하고 나머지 14사례는 각자 사례를 읽고 영역을 구성한 다음 다시 모여 토의를 거쳐 합의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연구팀은 대학원에서 상담심리 혹은 임상심리를 전공한 석사 2명, 박사 2명으로 평균 상담경력은 8년이다. 영역부호화 결과 최종적으로 5영역이 도출되었다.

2) 요약반응의 구성(핵심내용 요약)

영역별 정리가 끝난 후 각 영역의 내용을 요약하여 핵심내용을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 사이버 상담 게시판을 통한 상담은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의 일종으로 사이버상담실에 개설된 게시판에 내담자가 자신의 고민을 올려놓으면 상담자가 답을 해주고, 때로는 그 글을 읽은 제3자가 답을 해줌으로써 여러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상담형태이다. 본 연구가 이루어진 상담기관의 경우, 사이버 상담은 게시판 상담과 채팅 상담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게시판 상담의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개게시판과 상담자만 글을 읽고 답을 할 수 있는 비밀게시판으로 나뉘어 개설되어 있다.

연구자의 추론을 배제하고 주어진 자료에 충실하였으며 사례의 전체 맥락을 염두에 두었다. 먼저 각 연구자가 사례를 영역별로 요약반응을 구성한 후 연구팀 전원이 모여 요약반응의 내용을 검토하고 토의하고 합의하였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토의를 걸쳐 결정하였다.

3) 영역과 요약반응의 감수

모든 24사례의 영역과 요약반응을 구성한 후 CQR을 이용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상담 심리를 전공한 박사급 연구자의 감수를 받는 과정을 거쳤다. 감수에서 지적된 내용은 연구팀이 토의하여 감수자의 의견에 따라 영역이나 요약반응을 수정하거나 연구팀의 결정을 유지하였다.

4) 교차분석 및 교차분석의 감수

우선 연구팀이 각 영역별로 안정성 체크를 위해 총 사례에서 5사례를 제외하고 19사례의 요약 반응들을 검토하여 범주화한 후 연구팀이 모여 토의하고 합의하였다. 이후 교차분석 자료에 관한 감수자의 감수를 받았다.

5) 안정성 체크

교차분석이 끝난 후 교차분석에서 제외되었던 5사례를 포함하여 새로운 영역이 생기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영역에 변화가 없어 연구결과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결과

CQR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 영역은 모두 5영역이다. 각 영역마다 24사례 모두에서 나타난 것은 '일반적(general)', 12-23사례에서 나타나는 경우 '전형적(typical)', 4-11사례에서 나타나는 경우 '드문(variant)', 2-3사례의 경우에는 '매우 드문(rare)'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표집의 대표성 결정과정에서의 분류방식을 따라 사이버 상담에서 나타난 진로장벽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특성에 대하여 분석한 것이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사이버 상담에서 나타난 진로장벽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특성

영역	범주	응답빈도
1. 진로장벽 호소 시기	1)고1	드문 (5)
	2)고2	전형적 (13)
	3)고3	드문 (6)
2. 진로장벽*의 유형	1)능력부족	전형적 (20)
	: 성적부진	: 드문 (11)
	: 재능부족	: 드문 (9)
	2)경제적인 문제	전형적 (15)
	3)부모의 반대	전형적 (14)
3. 진로장벽을 경험한 청소년의 환경적 특징	1)도움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부재	드문 (5)
	2)이야기할 대상의 부재	매우 드문 (3)
4. 진로장벽에 대한 반응	1)인지	드문 (11)
	: 인지적 혼란	: 드문 (4)
	: 과잉일반화	: 드문 (7)
	2)행동	드문 (9)
	: 대안탐색 행동	: 드문 (4)
	: 문제해결 행동	: 드문 (5)
	3)정서	전형적 (13)
: 분노	: 매우 드문 (3)	
: 우울	: 드문 (10)	
5. 진로장벽을 경험한 청소년의 사이버 상담에 대한 기대	1)문제해결방법을 구함	드문 (8)
	2)감정정화	매우 드문 (3)
	3)자신의 문제에 대한 이해	매우 드문 (2)

1. 진로장벽 호소 시기

사이버 상담 게시판에 진로장벽으로 인한 고민을 호소하는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13사례로 [전형적]으로 보고되었다. 고등학교 3학년은 6사례, 고등학교 1학년은 5사례로 [드문]으로 분류되었다. 청소년에게 있어 고등학교 시기는 성인기의 전 단계이자 향후 직업과 연결되는 대학 진학을 앞에 두고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시기는 진로 목표에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구체화해야 하는 압력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특히 대학 진학을 목전에 두고 있는 고3과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는 고1보다는 고2 때가 자신이 원하는 진로목표와 이의 수행

* 본 연구에서의 진로장벽은 원하는 진로가 있지만 그 진로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장벽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진로장벽으로 제한하였다.

을 방해하는 진로장벽 사이에서 혼란과 갈등을 가장 많이 보고할 수 있으며 진로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진로장벽의 유형

원하는 진로가 있지만 자신의 진로계획의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능력 부족(전형적), 경제적인 문제(전형적), 부모의 반대(전형적)를 진로장벽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의 능력 부족이 20사례로 가장 많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다시 학업성적 부진과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의 재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뉘었다. 학업성적 부진은 일반적으로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에 주로 보고되었으며 재능의 부족은 예체능계 학생 혹은 예체능계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문제는 15사례에서 보고되었으며 가정의 경제 형편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진로수행에 있어서 경제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나타났다. 부모의 반대는 부모가 자신이 원하는 진로 혹은 직업을 반대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결정한 진로목표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14사례에서 보고되었다. 가정의 경제사정과 부모의 반대의 경우도 예체능계 학생들이 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진로장벽 유형의 구체적 예는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능력 부족

(1) 성적부진

‘저는 약대에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수능이 너무 안 나와서 약대에 대해 재고심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자꾸 약대를 가라고만 밀어붙이십니다.’(사례7)

‘부모님이 이름 있는 대학이 아니면 재수를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재수할 마음이 없어요. 저는 연극영화과를 가고 싶은데 담임은 점수 맞춰서 가라고 하고 지금은 성적이 안돼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다는 게 답답해요.’(사례8)

‘원래 제 꿈은 초등학교 때부터 방송기자예요. 기자라는 직업이 좋아서 어린이 기자로 활동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성적이예요. 성적이 좋지 않아 정말 내 꿈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사례18)

‘제가 이렇게 절망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수능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친 모의고사 중에서 가장 최악으로 봤거든요. 수능을요. 이 성적으로는 제가 가고 싶은 곳은 갈 수가 없어요’(사례 21)

성적은 원하는 학과나 대학의 선택을 위한 기본적 요건 중 하나이다. 따라서 성적부진은 곧 자신의 진로 선택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한다. 본 사례분석 결과에서도 성적 부진이 진로선택에 있어 주된 진로장벽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 자신과 부모님의 원하는 진

로는 비교적 뚜렷하였으나 성적 부진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없게 된 경우가
 며 때로는 이로 인해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였다. 즉, 자녀의 경우 성적부진으로
 인해 자신감이 저하될 수 있으며, 부모님의 경우에는 성적부진의 원인을 자녀의 학습태도에 두
 고 자녀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진로방향으로의 선택을 강요할 수도 있는 것이다.

(2) 재능부족

‘이번에 기획사를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과 스타일리스트를 봤어요. 저는 이
 쪽으로 나가고 싶었는데 그 언니들이 하는 것을 보니 저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너무 속상했어요.’
 (사례2)

‘제가 태권도를 하는데요. 그리고 태권도 대학을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태권도장에 가면 다 남자
 예요. 여자는 한명도 없고.. 그것도 너무 힘들지만 제가 과연 소질이 있는지. 태권도로 뭘 할 수 있
 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것만 생각했는데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공부할 수도 없고..’(사례11)

‘저는 음악을 좋아해서 작곡가가 꿈이고 해서 실용음악과에 가서 기초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그
 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아이들의 실력이 뛰어나더군요. 음악을 좋아
 하지만 제 실력은 너무나 미미한 것이고 많이 뒤처집니다.’(사례17)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의 능력이 일치하는 경우 진로 선택은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재능 부족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큰 좌절을 경험할 수 있다. 본
 사례분석 결과 특히 예체능 계열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포기해야 하는 사례 등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진로를 결정할 수
 없음을 직면하는 경우 이들은 진로설정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등 큰 혼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2) 경제적인 문제

‘학교를 그만두고 일본으로 유학가고 싶어요. 근데 집안 사정이 유학은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얘
 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거절부터 하시는 부모님. 이런 얘기는 들어줄 친구도 없고 정말 죽어버리고
 싶어요’(사례1)

‘저의 목표는 성악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악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저희 집
 은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성악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사례3)

‘그런데 문제는 돈인 것 같습니다. 학원비도 모자라고 일을 안 하면 내 차비 내가 쓸 돈도 없고
 아예 학원비도 없어요.’(사례6)

‘저의 꿈은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미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의 집은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빚 때문에 엄마도 아빠도 힘든 상황인거 같습니다. 집안형편 때문에 제

꿈을 접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미술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도 힘듭니다.(사례16)

‘어느 날 학교를 가려고 문을 나서는데 엄마가 “네가 나팔을 불고 싶어 하는 건 알겠는데 집에 돈이 없단다. 미안한데 다른 하고 싶은 것을 해보면 어떨겠냐? 라고 하기에 저는 담담한척 했어요. 그러나 집을 나오고 나서는 골목길에서 숨죽여 울었어요. 나는 이렇게 진심인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나의 꿈이 사라지는 것이 비참했어요.’(사례19)

사례분석 결과 경제적 어려움이 진로장벽의 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흔히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는 크게 진학과 취업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예체능 계열의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로결정이 어렵게 된다. 사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가정의 경제적 능력을 벗어나는 추가 교육비는 결국 진로 방향을 변경시킬 수도 있는 중요한 진로장벽 요인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3) 부모의 반대

‘전 엄마가 너무나 싫습니다. 엄마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사사건건 반대하세요. 저는 너무나 연기를 하고 싶는데 너 주제에 무슨 연기냐고 공부나 잘 하라고 하십니다. 정말 너무 싫어요’(사례7)

‘개학을 하고 아빠한테 트론본을 하고 싶다고. 그런데 아빠는 맨 처음 관악부에 들었을 때와는 다르게 반대하시는 거예요. 트론본은 여자가 하는 악기가 아니고 갈 수 있는 길도 많지가 않다고요. 차라리 클라리넷을 하라고 하시는데...’(사례9)

‘제 장래 희망은 프로그래머입니다.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를 **디지털고등학교를 가고 싶는데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세요. 지금은 **고에 다니고 있는데 하루만 있어도 머리가 아프고 정말 가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다니다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할 것 같아요.’(사례12)

‘음악이라면 더욱이 실용음악이라면 치를 떠시는 부모님께 작곡을 하고 싶다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음악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하지 못해서 괴롭습니다.’(사례24)

본 연구결과 부모의 반대가 진로장벽의 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사례에서와 같이 청소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부모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며,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다. 진로선택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은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를 설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진로 방향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또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3. 진로장벽을 경험한 청소년의 환경적 특징

진로장벽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지지자원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을 경험한 청소년의 환경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 도움을 받을 대상이 없다고 응답한 사례가 5사례로 [드문]으로 나타났으며, 고민과 답답함을 말할 대상이 없다는 응답도 3사례로 [매우 드문]으로 분류되었다. 이처럼 이야기할 대상이 없다는 응답은 그 빈도가 높지는 않으나 진로장벽을 경험하는 청소년 중에는 부모나 형제,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고민을 들어주거나 특히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자원이 빈약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 도움 받을 대상의 부재

‘이렇게 아프지만 진짜 미칠 듯이 힘든 이 문제점 안 풀리면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아픈 몸을 견뎌내고 컴퓨터에 앉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현실에 가슴이 아픕니다.’(사례13)

‘예전에 글을 한번 남긴 적이 있는데 이렇게 또 제 필요에 의해 글을 쓰게 되네요. 저에게는 제가 힘들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저보고 포기하라고 해요.’(사례5)

‘제가 요즘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도움을 구할 곳도 없고 해서 여기다 얘기를 해보려고요.’(사례9)

2) 이야기할 대상의 부재

‘처음에는 얘기를 조금 들어주었는데 아이들도 이제 지쳤나 봐요. 얘기를 들어줄 생각을 안 해요. 저도 눈치 보이구요.’(사례1)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은 마음 아파할 거고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대상이 없어요.’(사례16)

‘어디에도 말할 곳이 없어요. 친구도 부모님도 선생님도...’(사례11)

자신이 원하는 진로선택에 장벽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게 자신의 고민과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은 큰 도움이 된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진로장벽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진로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대상의 부재로 인해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대상이 없다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사이버 상담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의 문제해결에 대한 동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4. 진로장벽에 대한 반응

진로장벽에 대한 반응은 크게 인지(드문), 행동(드문), 정서(전형적)로 구분되었다. 인지 반응은 11사례에서 보고되었으며 인지적 혼란(드문)과 과잉일반화(드문)가 이에 포함되었다. 인지적 혼란은 4사례에서 보고되었으며 주로 다음 단계의 행동에 대한 방향성을 잃고 혼란스러운 경우로 나타났다. 과잉일반화는 7사례에서 보고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의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 반응은 13사례에서 보고되었으며 우울(드문)과 분노(매우 드문) 반응으로 구분되었다. 이 중 우울은 10사례에서 보고되어 진로장벽에 대한 정서반응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행동 반응은 9사례에서 보고되었고 대안탐색 행동(드문)과 문제해결 행동(드문)으로 나누어졌다. 따라서 진로장벽을 경험하는 중에도 행동에 있어서는 대안을 탐색하는 행동이나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에 대한 반응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 인지 반응

(1) 인지적 혼란

‘결국은 제가 해야 하는데요. 돈도 벌어야 하니 알바까지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알바를 하거나 공부할 시간이 없고, 알바를 하지 않으면 돈이 없고 이것저것 다 때려치우고 싶어요.’(사례 2)

‘집에서는 재수를 권장하셨어요. 예전부터 재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편입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머릿속이 복잡해요.’(사례5)

‘막상 고등학교에 와 보니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데 제 성적은 좋지 않고 제가 이 꿈을 지켜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적이 걸리고 그래서 큐레이터도 못할 것 같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사례18)

(2) 과잉일반화

‘현재 나에게 처해진 상황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떤 것도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요’(사례1)

‘중학교 때 주재원인 아빠를 따라 미국에 갔고 3년간 있었어요. 그 이후로 오니 점수도 안 나오고 다시 그 시간을 돌리고 싶어요. 아무 희망이 없고 모든 것에 자신이 없어요.’(사례5)

‘내가 성적이 이렇게 나오니 주변에서 다 나를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저도 잘 해낼 수 있으리라는 자신이 없어요. 공부를 했는데도 지난번보다도 성적이 안 나오다니 전 바보인가 봐요.’(사례23)

이처럼 진로장벽을 경험하는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연함과 그런 상황을 피하거나 선택을 포기하고 싶은 인지적 혼란을 경험하며, 한 번의 좌절이나 현재 상황을 생활전반

에서의 어려움으로 지각하는 인지적 오류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원하는 진로가 좌절된 경우 인지적 혼란은 지금까지 준비했던 진로를 포기해야 함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며 좌절감으로 인해 작은 부정적 단서를 전체로 지각하는 과잉일반화의 인지적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방지하는 경우 이러한 인지적 반응이 만성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진로장벽을 경험하는 청소년에게는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대안적인 방법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2) 행동 반응

(1) 대안 탐색 행동

‘내가 자주 약해지는 것이 싫었어요. 그러다보니 오버해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말도 많아지고 내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사례11)

‘다른 방편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제 꿈은 사회부 기자인데 이런 저런 이유로 하기 어렵다면 제가 큐레이터 쪽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대 쪽을 전공을 해서 미술전문기자로 활동하는 거요.’(사례18)

‘그런데 엄마가 과외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그 돈을 나에게 쓰는 것은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벌어보자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레슨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사례19)

(2) 문제해결 행동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성적을 올려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사례19)

‘레슨비 대줄 것도 없다고 하니 아르바이트를 알아봤어요. 제가 벌어서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아르바이트 구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사례10)

‘우선 반대만 하시는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엄마를 서서히 설득하려고요. 제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엄마도 들어주시겠죠’(사례22)

본 연구결과 진로장벽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러 장애가 되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시도하고 고민하고 실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레슨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성적을 올리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3) 정서 반응

(1) 우울

‘저는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제 꿈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자꾸 다른 생각하고 눈물만 나고 계속 잠만 자고 싶습니다.’(사례16)

‘집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가면서 골목길에서 숨죽여 울었어요. 정말 너무나 슬펐어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 다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사례19).

‘가슴이 먹먹하고 찢기듯이 아플까요. 자꾸 눈물이 납니다.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음악을 잊고 살면 나중에 음악할 수 있을까.’(사례24)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살도 찌버려서 정말 인간쓰레기가 된 기분이에요. 제가 너무 싫어요. 세상이 다요. 그냥 다 끝나버렸으면 좋겠어요.’(사례21)

(2) 분노

‘좌절감과 자신감 또한 잃게 되어 현재 인생 포기한 상태입니다. 분노의 주먹을 꼭 쥐고 있습니다. 다 싫습니다.’(사례13).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는 생각하지만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 싫고 우리 가족이 원망스러워요.’(사례16)

본 연구결과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 좌절감과 분노,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서는 자신에 대한 우울과 주변인에 대한 분노로 표현되고 있다. 진로장벽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정서적 경험은 자신의 꿈이 좌절되는 순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정서의 정도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곧 이러한 정서처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만성적인 우울이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5. 진로장벽을 경험한 청소년의 사이버 상담에 대한 기대

청소년들은 사이버 상담을 통하여 진로장벽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을 구하고 있는 것(드문)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방법에 대한 요구는 8사례에서 보고되어 청소년들이 사이버 상담을 통한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내담자들은 사이버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호소하고 이를 통해 답답함을 정화하고자 하는 욕구(매우 드문), 자신의 문제의 원인에 대해 이해하고 싶은 욕구(매우 드문)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 문제해결방법을 구함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런 고민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대학에 가라고 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해 주세요.’(사례5)

‘아무튼 부모님한테 피해 안가고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사례6)

‘부모님을 설득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어떤 과가 저의 미래를 위해서 나은지 이야기 해주세요.’(사례8)

‘제가 이제 트롬본을 다시 잡을 방법을 없을까요?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사례19)

2) 감정정화

‘저의 답답한 마음을 털어버리고 싶어요. 지금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더 문제가 커질 것 같아요.’(사례13)

‘무엇을 하던지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막막하고요. 누군가에게 막 화를 내고 싶은데 그렇게도 못하고, 여기어라도 글을 써야 속이 풀릴 것 같아서요.’(사례17)

3)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이해

‘내가 왜 이러는지 알고 싶어요. 부모님은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내가 한심하고 왜 그러는지 알고 싶어요.’(사례18)

‘내가 왜 가수가 되고 싶은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성공할 자신도 없는데 내가 왜 가수가 되고 싶은지 알고 싶어요.’(사례13)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엄마와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른지도 알고 싶어요.’(사례24)

본 연구결과 청소년은 사이버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이해, 감정의 정화, 문제해결방법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대면상담에서도 나타나는 상담에 대한 기대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진로문제에 대한 자신의 답답함을 털어버리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은 사이버 상담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 고민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IV. 논의

본 연구는 자신의 진로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로장벽을 만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의 사이버 상담 게시판 사례의 질적 분석을 통하여, 진로장벽과 이에 관련한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내적 경험과 특징을 이해하고 청소년 진로지도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2009년 청소년 상담 기관에 접수된 게시판 상담 사례 중 진로목표를 선택했지만 수행과정에서 진로장벽을 경험하고 있는 24사례를 CQR로 분석하여 진로장벽의 호소 시기, 진로장벽의 유형, 진로장벽을 경험한 청소년의 환경적 특징, 진로장벽에 대한 반응, 진로장벽을 경험한 청소년의 사이버 상담에 대한 기대의 5개 영역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5개 영역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진로장벽의 특징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장벽의 경험은 고등학교 2학년이 [전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드물지만 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도 진로장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시기는 대학에서의 전공결정이나 직업선택을 앞두고 있는 시기로 자기 자신과 직업에 대한 탐색 과정을 거치며 이전의 개인의 흥미위주의 진로선택이 아닌 현실적인 요인들을 고려한 선택이 요구되는 시기이다(정윤경, 2002). 이렇게 현실적인 요인들과의 조율이 필요해지면서 이전에 비해 고등학생 시기에 자신의 진로목표 수행을 방해하는 진로장벽을 더 구체적으로 지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 문과, 이과 결정을 하고 난 이후 계열별로 다른 수업을 받게 되며 3학년으로 올라가면 대학 및 학과 선택 혹은 직업 선택 등 진로를 구체적으로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2학년 시기가 진로장벽을 깨닫도록 하는 현실적인 요인과의 갈등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의사결정모델을 분석한 결과(구본용, 유제민, 김택호, 2004), 고등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상담과 교육에 있어서 학교급간 차이뿐 아니라 학년별 차이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진로상담에 있어서 학년에 따른 차별화가 필요하며 특히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진로장벽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진로장벽으로는 성적이나 재능 등 자신의 능력 부족과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부모의 반대 [전형적]인 유형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은 자신의 능력과 관계된 개인 내적인 요인과 가정의 경제상황 그리고 부모의 반대 등 맥락적 요인을 모두 진로장벽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능력 부족'을 진로장벽으로 인식하고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점은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있어서 능력이나 적성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며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진로결정에서 어려움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여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이영애, 채연희, 이선경, 1992), '자아' 영역에 대한 진로교육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 하위 영역에서는 '자신의 능력과 적성 개발'이 인문계(85.8%), 실업계(81.4%) 모두에서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따라서 진로상담 및 교육에서는 각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개발하고 이에 적합한 진로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상담자는 진로상담에서 자신의 능력 부족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빈도가 높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능력 부족은 다시 성적부진과 재능 부족의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나뉘는데, 성적부진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진로장벽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호소하는 영역인 반면, 재능의 부족은 예체능계 학생들 혹은 대학의 예체능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과 실업계 학생들이 주로 보고하는 자신의 능력과 관련된 진로장벽이다. 성적부진을 이유로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는 여전히 자신의 진로목표를 유지하면서 대학과 학과를 수정하는 방식의 개입이 가능하고 시간을 두고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재능부족을 경험하는 경우는 진로목표 자체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신중한 개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예체능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상담 시에는 이렇게 재능부족을 진로장벽으로 경험하는 학생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경제적인 문제'는 여러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주요 진로장벽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 경우 그로 인해 학생들은 경제적 압박감을 받게 되며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윤주, 김경화, 민하영, 2008). 또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매개변인을 통해 개인의 진로결정 몰입수준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최수정, 정철영, 2007). 특히 학교 등록금외의 레슨비 등 과외비용을 필요로 하는 예체능계 학생들 혹은 예체능관련 전공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경우 집안의 경제 사정이 진로목표수행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로 진로목표 수행과정에서 좌절하고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상담 시 상담자는 학생들이 겪는 무기력감과 분노, 우울 등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공감과 함께 비용을 충당할 다른 수단은 없는지 등을 학생과 함께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세 번째 진로장벽 유형은 '부모의 반대'이다. 청소년기는 심리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의 목표에 대해 탐색해나가는 시기이다. 따라서 부모의 통제와 간섭이 심한 경우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된다.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은아(2007)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진로를 결정할 때 본인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로결정에서의 '자기주도성'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시에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문제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로 부모와 친척(71.1%)이 친구나 선배(21.%), 교사(3.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이재창, 2002), 청소년들

에게 여전히 부모가 진로결정에서 중요한 인물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부모는 청소년들이 적절한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인물임과 동시에 청소년들이 결정한 진로목표를 지지 혹은 반대함으로써 진로목표의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광자와 김순옥(2005)은 부모의 지지가 청소년의 진로발달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고 보고하고, 특히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부모의 지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변인으로 설명했다. 이는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녀들이 진로와 관련된 행동 수행에서 자기 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부모의 지지가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녀가 결정한 진로에 대한 부모의 반대는 자녀의 진로목표 수행에서 진로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반대로 인한 부모와의 잦은 갈등은 자녀의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고, 부모로부터의 인정 욕구도 충족되지 않아 진로목표 수행에 방해가 된다. 청소년 내담자가 진로결정에서 부모의 반대를 진로장벽으로 경험하는 경우 어느 측면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부모가 실제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반대할 것이라고 내담자가 추측하고 미리 걱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도 필요하다.

이처럼 본 연구의 대상 청소년들은 '자신의 능력 부족', '경제적 이유', '부모의 반대'라는 세 가지 유형을 [전형적]인 진로장벽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진로장벽의 세 가지 유형은 특히 예체능계 학생들이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예체능계 학생들의 진로상담 시 이 세 가지 유형의 장벽을 모두 고려하여 개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진로장벽의 유형을 상담자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진로결정과정에서 장애 요소를 제거할수록 진로결정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되어 진로결정과 관련한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되고 보다 낙관적인 진로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황매향, 이아라, 박은혜, 2005; Taveira et al., 1998).

셋째, 진로장벽을 경험한 청소년의 환경적 특징을 살펴보면, 도움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부재가 [드문]으로 나타났고, 이야기할 대상의 부재가 [매우 드문]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장벽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자원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지자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의 경우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상담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사이버 상담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부가적인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이는 사이버 게시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즉, 전문 상담자를 만날 시간이 여의치 않고,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의논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사이버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진로결정을 돕는 사회지지체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예: 시간 부족, 경제적 여건) 다른 사회지지체계(예: 부모님, 친구 등)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경우 사이버 상담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 상담이 갖고 있는 접근 용이성(시간적, 공간적)과 익명성(원하는 경우)은 본 연구결과 나타난 진로장벽의 유형처럼 가족과 관계되는(경제 사정, 부모의 반대) 문제라서 가족이나 친구와 의논이 어렵지만 문제해결이 절실한 경우 사이버 상담을 찾도록 촉진할 수 있는 특성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에 대한 사이버 상담연구가 더욱 필요하며 사이버 상담자들의 청소년 진로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로문제 유형에 따른 적절한 개입과 지원 방안에 대한 역량 강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이 시사된다. 즉, 이러한 영역에서의 사이버 상담의 역량 강화와 함께 각 급 학교에 배치되는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상담사 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서비스를 보급하는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진로 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된다.

넷째, 진로장벽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응은 인지적 반응이 [드문], 행동적 반응이 [드문], 정서적 반응이 [전형적]인 것으로 나타나 진로장벽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인지적 반응으로는 인지적 혼란이 [드문], 과잉일반화가 [드문]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몰입이 전단계에 있는 사람이 주변상황이나 경험 등에 영향을 받아 진로를 바꾸게 되는 경우 불안감, 자기회의, 인지적 혼란 등을 경험하게 된다(최수정, 정철영, 2007). 또한 진로를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목표수행과정에서 진로장벽을 만난 경우 이러한 혼란은 더욱 상승된다. 본 연구결과 도출된 세 가지 진로장벽의 유형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다는 무기력감을 경험하거나 자아개념이 낮아져서 자아 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통제력을 잃고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또한 진로장벽으로 인해 진로목표수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를 일반화하여 자신의 인생 전체에 문제가 생겼거나 자신이 이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인지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러한 인지적 혼란과 과잉일반화와 같은 인지적 오류는 청소년들의 정서상태를 보다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지적 반응이 관찰되는 경우 인지행동치료를 통한 인지 왜곡의 수정이 필요하다.

진로장벽에 대한 청소년들의 정서 반응은 [전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정서 반응으로는 우울이 [드문], 분노가 [매우 드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우울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인한 진로장벽을 경험하는 경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을 갖게 되고, 집단의 경제 사정이나 부모의 반대로 인한 진로장벽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인이라는 점에서 무기력감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도록 한다. 청소년들이 열등감이나 장래에 대한 무망감을 느낄 때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연구결과(이윤주, 김경화, 민하영, 2008)는 진로장벽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력을 보여준다.

이처럼 진로장벽에 대해 인지적,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청소년들은 행동적인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에 대한 청소년들의 행동적 반응은 대안탐색 행동과 문제해결 행동으로 나뉘어진다. 청소년들

은 설정한 목표 달성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때 다른 방향으로 진로를 탐색하거나 또는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행동을 보였다. 사이버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방안 모색도 진로장벽에 대한 행동 반응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탐색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이 드물지만 나타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상담자들은 인지적, 정서적 혼란에 대한 개입과 함께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행동 반응도 있는지 탐색하여 이를 격려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진로장벽을 경험한 청소년의 사이버 상담에 대한 기대는 자신의 진로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구하는 것이 [드문]으로 나타났고, 감정의 정화와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매우 드문]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사이버 상담을 통한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원하는 것은 사이버 상담이 대면 상담과는 달리 자신의 문제를 일방적으로 호소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자신이 궁금한 부분,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요구가 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진로장벽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지지자원이 빈약한 경우 인지적, 정서적인 혼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진로장벽을 만나 좌절을 겪은 시점에서 청소년들이 호소하는 문제와 이를 통한 사이버 상담에 대한 기대를 상담자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상담은 대면 상담보다는 훨씬 개방적이고 솔직해질 수 있으며(임진호, 2000), 청소년들은 대면 상담 시 공개하기 어려운 문제까지도 부담 없이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아 볼 수 있는 등 문제 해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 허애지(2003)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사이버 상담이 상담 실제에서 상담에 비협조적인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내담자로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이버 상담이 단기해결중심의 상담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이버 상담은 원하는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상대방이나 주위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이점 또한 가지고 있다(임은미, 김지은, 박승민, 2001).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사이버 상담에서 나타난 고등학교생들의 진로장벽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여 진로결정과정, 특히 잠정적으로 진로를 결정한 청소년들이 진로장벽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진로문제는 학습문제와 함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이며(한국청소년상담원, 2010).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진로상담 및 교육에서는 청소년들의 진로문제를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차별화된 개입방안의 개발에 주력해 왔다. 특히 진로장벽은 진로결정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개인 내적인 혹은 환경적인 장애물로 개인의 진로결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진로결정과정에서 개인의 흥미와 적성 뿐 아니라 현실적인 요소들(예: 개인의 능력, 가정의 경제사정, 부모의 반대 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점과 진로결정과정이 이러한 진로장벽에 대한 대처를

동반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렇게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에서 차지하는 진로장벽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이에 대한 실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사이버 상담 게시판에 올린 실제 사례를 근거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진로장벽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여 청소년들의 진로상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또한 진로탐색에서 진로결정으로 나아가는 일직선상의 진로발달모델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진로목표를 잠정적으로 결정한 후 겪는 진로장벽으로 인해 좌절을 겪은 청소년들에 주목함으로써 역동적인 진로발달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에도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버 상담 게시판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개방적이고 진솔한 청소년들의 진로장벽에 대한 내적 경험과 상담에 대한 요구를 분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경기지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고등학생 집단 전체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지역의 사례를 포함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진로를 잠정적으로 결정한 청소년들이 진로목표수행에서 만나게 되는 진로장벽을 탐색한 것으로 진로결정에 무관심하거나 진로결정에 관심이 있지만 현재 자신과 진로 혹은 직업에 대한 정보탐색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진로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진로정보수집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사례들은 자신의 능력 부족, 경제적인 문제, 부모의 반대가 주요 진로장벽 유형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와는 달리, Swanson, Daniels과 Tokar(1996)의 연구에서 제시된 진로장벽 유형에 비추어볼 때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역할 갈등 및 성차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에 대한 진로장벽이 주요하게 나타나리라 추정된다. 이후에는 진로를 잠정적으로 결정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모두 포함하여 진로장벽 유형을 탐색하고 각각의 진로장벽 유형에 대한 청소년들의 내적 경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셋째, 사이버 상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문자로만 이루어지는 사이버 상담의 여러 가지 한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사이버 상담자의 반응분석과 사이버 상담 수퍼비전에 대한 연구 등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쌍방향 의사소통이 아닌 일방향 의사소통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므로 게시판 내담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밝히고 구체화하는 데에 있어서 한계를 지닌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면접 방식을 도입하여 게시판에 글을 올린 시점과 이후의 변화를 탐색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진로장벽 대처와 해결과정 그리고 상담에서 요구되는 부분까지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양한 진로장벽을 동시에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예체능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 방식의 연구는 이들을 위한 상담개입방안 모색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공윤정 (2008). 진로장벽: 이론적 고찰 및 상담 실제에의 적용, **상담학연구**, 6(3), 861-874.
- 구분용, 유제민, 김택호 (2004). 일반계 고교생의 진로 의사결정모델, **청소년상담연구**, 12(1), 121-131.
- 김계현, 김동일, 김봉환, 김창대, 김혜숙, 남상인, 조한익 (2000). **학교상담과 생활지도**. 서울: 학지사.
- 박성미 (2004).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과정에 영향을 주는 진로결정장애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2(2), 124-135.
- 손은령, 손진희 (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 양미진, 김상수, 심용출, 허자영, 김경민, 채민정 (2009). **학부모개입 지침서: 진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양미진, 이영희 (2006). 질적 분석을 통한 비자발적인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지속 요인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1-20.
- 이창호, 오혜영, 김상수, 이현숙, 허지은, 김경민 (2009). **2009 상담경향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윤나리, 김영란 (2004). 우리나라 청소년의 소외감과 청소년 복지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6(2), 101-113.
- 이광자, 김순옥 (2005). 부모 지지와 고등학생 진로발달과의 관계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14.
- 이영애, 채연희, 이선경 (1992). 대구시 여자고등학생의 진로교육 요구 조사, **한국청소년연구**, 10, 153-168.
- 이윤주, 김경화, 민하영 (2008). 인문계 고등학생의 자살생각 및 시도와 소외감 및 진로장벽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6(1), 69-85.
- 이은아 (2007). 청소년의 진로관 결정요인과 학년별 변화, **한국사회**, 8(1), 121-162.
- 이재창 (2002). **인간이해를 위한 심리학**. 서울: 문음사.
- 임진호 (2000). 사이버상담에서 내담자의 상담내용과 호소유형간의 관련성 연구. 석사학위 논문, 국민대학교.
- 유영미, 문승태 (2005). 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 및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 **한국**

진로교육학회: 진로교육연구, 18(2), 1-19.

- 정윤경 (2002).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에 관한 구조방정식모형의 구축, **직업능력개발연구**, 5(2), 147-172.
- 지승희 (2001). 회피형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 과정 및 변화 요인 연구.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지승희, 신호정, 이명우 (2008). 사이버상담에 나타난 청소년의 자살행동 특징, **상담학연구**, 9(1), 165-179.
- 천석준, 이기학 (2008).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에서의 Hollnad 흥미 유형별 내적, 맥락적 장벽 요인의 효과모형검증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07-430.
- 최수정, 정철영 (2007).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 몰입과 가족변인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2), 161-183.
- 허애지 (2003). 청소년 사이버상담의 이용실태 및 효용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 황매향, 이아라, 박은혜 (2005).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의 타당도 검증 및 잠재평균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16(2), 125-159
- 황매향, 이은설, 유성경 (2005).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의 개발 및 구인타당도 검증. **상담학연구**, 6(4), 1205-1223.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0). **사이버진로상담; 이메일상담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국청소년상담원 (2010). **2009 상담경향보고서**.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2008년 한국 인터넷백서**. 한국인터넷진흥원.
- Crites, J. O. (1969).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 Crites, J. O. (1981). *Career counseling*. New York: McGraw-Hill.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Publishing.
- Fuqua, D. R., & Hartman, B. W. (1983). Differenti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The Personnel & Guidance Journal*, 62, 27-29.
- Gottfredson, G. D.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79.
- Gybers, N. C., Heppner, M. J., & Johnson, J. A. (2003). *Career counseling: process, issues, and techniques (2nd ed.)*. New York: Allyn & Bacon.
- Jones, L. K., & Chenery, M. F. (1980). Multiple subtypes among vocationally undecided college students: A model and assessment instru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469-477.

- Larson, L. M., Heppner, P. P., Ham, T., & Dugan, K. (1988). Investigating multiple subtypes of career indecision through cluster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439-446.
- Lent, R. W., Brown, S. T.,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ied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Lent, R. W., Brown, S. T.,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36-49.
- Luzzo, D. A. (1993). Ethnic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21*, 227-236.
- Luzzo, D. A. (1996).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occupational barrier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2*, 239-248.
- Marcia, J. E.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 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551-558.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 (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pp. 159-187). New York: Wiley.
- McWhiter, E. H. (1997). Perceived barriers to education and career: ethnic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 124-140.
- Multon, K.D., Heppner, M.J., & Lapan, R.T.(1995). An empirical derivation of career decision subtypes in a high school sampl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7*, 76-92. Pennebaker (1997). *Opening up*. (김중환, 박광배 역. **털어놓기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Savickas, M. L. (1989). Annual review: practice and research in career counseling and development.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27*, 230-238.
- Slaney, R. B. (1988). The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In W. B. Walsh, & S. H. Osipow (Ed), *Career decision making* (pp. 33-76).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wanson, J. L., Daniels, K. K., & Tokar, D. M. (1996). Assessing perceptions of career-related barriers: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219-244.
- Swanson, J. L., & Woitke, M. B. (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 443-467.
- Taveira, M. D. C., Silva, M. C., Rodriguez, M. L., & Maia, J. (1998).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career exploration in adolescents. *British Journal of Counseling and Guidance*, 26, 89-104.

Whitbeck, Les B., Simons, Ronald L., Conger Rand D., Lorenx, Frederick O., Huck, Shirley., Elder, Jr., & Glenn H (1991). Family economic hardship, parental support and adolescent self-esteem,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4(4), 353-363.

* 논문접수 2010년 10월 4일 / 1차 심사 2010년 11월 5일 / 게재승인 2010년 12월 15일

* 양미진(楊美珍, Yang, Mijin):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상담 및 임상심리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상담 및 교육심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청소년상담원 역량개발실장으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청소년상담 이론과 실제, 토래상담, 청소년상담 슈퍼비전 등이 있다

* E-mail : yangmijin@kyci.or.kr

* 허자영(許慈暎, Heo, Jayoung):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에서 임상심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성심가족상담센터에서 아동,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다.

* E-mail : jayoung.heo@gmail.com

* 채민정(蔡旻廷, Chae, Minjung):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상담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청소년상담원 교육연수팀 상담원으로 재직 중이다.

* E-mail : jamina@kyci.or.kr

* 김경민(金庚珉, Kim, Kyungmin): 계명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팀 상담원으로 재직 중이다.

* E-mail : hagami@kyci.or.kr

Abstract

A Study on Adolescents' Career Barriers : Qualitative Analysis of Cyber Counseling Cases

Yang, Mijin*
Heo, Jayoung**
Chae, Minjung***
Kim Kyungm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adolescents' inner experience of career barriers using qualitative analysis and to provide the basis for career counseling. Specifically, this study focused on the experience of high school students who tentatively decided their careers but facing with career barriers on the path to achieve their career goals. 24 cases were selected from those mails that contain complaints about career barriers and were sent to the cyber(internet) counseling board at a youth counseling center. Selected cases were analyzed us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CQR),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high school students complained of career barriers during sophomore year(2nd grade) more compared with during freshman and junior year. Second, types of career barriers participants reported are doubts about one's ability related to one's low academic performance and lack of competence(talents) in one's major area, lack of financial support, and parents' opposition to one's career choice. Third, participants reported a lack of social resource which would provide emotional and/or practical support in the time of facing career barriers. Fourth, as a response to career barriers, although in rare occasions, participants reported cognitive confusion, over-generalization, exploring alternatives, and making an effort to solve problems. Emotional responses such as depression and anger were reported in more general terms. Lastly, as a reason to visit the cyber counseling board, participants appeared to have an expectation to find an effective way to cope with career barriers, to experience emotional catharsis and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current problem.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are discussed.

Key words : adolescents, career barriers, cyber counseling, qualitative research

* Main author, Assistant Professor,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 Correspond author, Counselor, SeongShim Family Counseling Center

*** Counselor,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